

노란봉투법 개정안 시행 임박 경영계, '불법쟁의' 자제 촉구

원청기업 상대 직접교섭 요구 가능
경총, 입장문 통해 노동계 협조 당부
“원하청 상생·협력교섭 절차 확립”

경영계가 오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행력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대상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급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

라면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상생 협력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총 36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진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참석하는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성운·서예진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모셔널 현대차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라스베이거스 거리를 주행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로보택시 상용화’ 순항

자율주행 시스템, AI 중심 구조 재설계
안전 최우선... 고객 경험 개선 작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과 함께 올해 말 상용화되는 무인 로보택시 계획을 공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로라 메이저 모셔널CEO는 현대차그룹 공식 팟캐스트 채널 ‘현대진행형’에 출연해 모셔널의 자율주행기술 비전을 공유하며 올해 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준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진행형’은 모빌리티 기술을 주제로 한 지식 콘텐츠로 지금까지 총 13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됐으며 이번이 14번째 에피소드다.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형식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이 직접 출연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는 진행자들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메이저 CEO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이저 CEO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 전환점으로 AI 중심 구조로의 시스템 재설계를 꼽았다. 그는 “2024년 자율주행 시스템 구조를 AI 중심(AI-first)으로 재설계하고 거대 주행 모델로 전환한 결정이 중요한 반곡점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과 달리 시스템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메이저 CEO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주행 품질 향상뿐 아니라 복잡한 도시 환경 대응 능력, 글로벌 확장성,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셔널은 거대 주행 모델을 할

용한 엔드투엔드(E2E) 방식을 전체 주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며 “돌발 상황 등 약 1% 수준의 엣지 케이스에는 오랜 기간 검증된 가드레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드레일 방식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는 안전 방어 체계를 의미한다. 메이저 CEO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1%의 엣지 케이스가 자율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학습 데이터”라고 말했다.

모셔널은 현재 미국 여러 지역에 연구개발 거점을 운영하며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와 피츠버그 두 도시에서 집중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이저 CEO는 “두 도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며 “라스베이거스는 계획된 도시 구조와 넓은 도로 등 현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피츠버그는 좁고 굽은 도로와 복잡한 교차로 등 오래된 도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저 CEO는 모셔널의 상용화 경쟁력으로 실제 서비스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꼽았다. 모셔널은 그동안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차량 호출 플랫폼과 협력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13만 회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확보했다.

메이저 CEO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뿐 아니라 승객 경험을 개선하는 작업도 상용화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말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용화 이전에 승객 경험 전반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metro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LG 마이크로RGB 에보 제품 이미지.

/LG전자

TV경쟁 치열... K-기업, ‘마이크로 RGB’ 승부

삼성 크기·화질·디자인 등 경험 개선
LG AI 프로세스 탑재... 성능 강화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TV업체들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출하량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TV 중심 전략과 함께 ‘마이크로 RGB’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며 시장 방어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61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시장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3% 낮아져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가전 보조금이 종료된 데다 중국 내 민간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TCL, 하이센스 등 중국 TV 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 북미와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출하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와 서유럽의 출하량은 각각 4.7%, 3.2% 증가했다. TCL과 하이센스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출하량도 전

년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자국 시장 위축에 대응해 해외 주요 시장으로 판매 축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TV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백라이트를 초소형화하고 RGB(빨강·초록·파랑) 소자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이크로 RGB’ TV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기술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비 성능은 다소 낮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15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한 데 이어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6·75·85·100인치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더 퍼스트 룩’ 행사에서는 130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공개하며 크기, 화질, 디자인, AI기술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 차세

대 TV경쟁을 선보이기도 했다.

LG전자 또한 지난해 마이크로 RGB 에보를 공개하며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시장 입지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 해당 제품은 최신 마이크로 RGB 기술과 LG 올레드의 광원 제어 기술을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OLED TV에 들어가던 LG전자의 3세대 알파11 AI프로세서를 탑재해 화질 처리 성능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LG 올레드 에보 W6’와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 라인업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올 초 CES2026 현장에서 “마이크로 RGB 에보와 미니 RGB를 함께 준비하며 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TV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순 출하량 경쟁보다는 프리미엄 제품과 기술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OLED와 차세대 RGB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물가 관리 최우선... 유류세 인하 고려해야”

>> 1면 ‘국제유가 100달러 눈앞’서 계속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내수에는 치명적이다.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면 수출도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첫 번째 타깃이 돼야 한다”며 “주유소들이 급격히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전쟁이 장

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부채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금리인상 등) 거시 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며 “미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려주는 정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